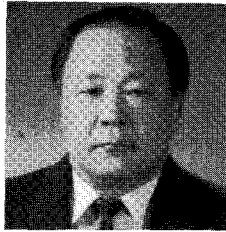


국제사료곡물

가격전망과 향후대책



한 국 사 료 협 회
상 무 盧 浚 龍

1. 국제곡물시장과 국내산업

초창기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가부산물이나

자급사료에만 의존하던 부업축산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60년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축산진흥시책에 힘입어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즉, 과거와 같은 부업축산 방식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두수는 늘어나 경영방식도 전업화, 기업화 축산방식으로 바뀌어졌다. 또한 사료공급도 국내자원의 한계성과 국내자원가격(DRC : Domestic Resource Cost)의 불리함으로 인해 값비싼 외국산 사료곡물을 수입해다가 배합사료를 생산해냄으로써 이와같은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국내축산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고, 사료산업도 급속히 성장하여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470만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했으며, 이를 만들기 위해 약850만톤의 사료곡물을 포함한 총 1,472만톤의 사료용원료가 이용되었다.

1994년도 우리나라 전체식량작물 생산량이 574만톤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량이며, 이들 사료원료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는 약 25%인 363만톤의 사료용원료가 국내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국산으로 표시된 원료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두박, 소맥피 등의 원재료인 원두나 원맥이 수입된 것임을 감안하면 거의 90% 이상을 수입원료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수입의존형 사료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의 값싼 사료원료가 수입되었고, 우리나라의 배합사료도 점차 외국산

사료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94년도 우리나라가 사료용원료로 직접 수입한 사료원료의 총 물량은 약 1,200만톤에 달하며, 이를 수입하는데 약 17억불(1조 3,600억)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물량면에서는 약 10%가량 증가했으며, 금액면에서도 곡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20억불(1조 6천억)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료용원료수입이 급증되면서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수입의존도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배태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민 대부분이 소비하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계란, 우유등이 국내에서 생산만 이루어졌을 뿐 그 원료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에서 공급되어진 것이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양돈산업, 낙농산업 할 것 없이 모든 축산부문이 국제곡물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은 국내축산업의 불안정을 몰고오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와같이 국제곡물시장과 국내축산업의 불가분의 관계는 이제 뿔레야 뿔 수 없는 피와 살의 관계가 되었고, 이와같은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냈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옥수수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곡가하락시 일정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곡가상승시에 보전해 줌으로써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

내사료가격을 안정시켜보려 했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8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이래 지금은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인상론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가격인상을 자제시켜오고 있지만 워낙 높은 폭의 가격상승 압박을 받을 경우 배합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의 곡가상승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배합사료 가격이 전망과 국내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 EU, 아르헨티나, 소련, 중국 등의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가격전망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곡물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사료용 원료 수급동향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원료로 이용되는 주요 수입사료곡물로는 옥수수, 수수, 사료용소맥, 호밀, 귀리 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기름을 짜낸 부산물인 대두박, 채종박이 있고, 그밖에도 소맥피, 알팔파, 타피오카, 루핀씨드등 여러가지 원료들이 있다.

그중 옥수수는 우리나라 배합사료 원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양계용 사료원료에 있어서는 계란의 난황과 육계의 피부착색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양계사료의 비중이 높던 우리나라에서는 사료곡물 수입시 주로 옥수수 단일곡종에만 주로 의존해 왔으나 최

근에는 타곡류로도 크게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옥수수의 경우 세계 총생산량은 약 5, 6억톤 이상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 한나라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물량은 총생산량의 약 10% 내외이며, 주요수출국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남아공 등이다. 지난 '84년부터 중국이 수출국으로 부상되어 옥수수 수출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자국내 수요량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출국으로의 위치는 불안하다. 특히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아서 세계 전체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입국들은 일본, 소련, EU, 대만, 한국등으로 일본이 전체 교역량의 25% 가량을 수입하며, 한국도 '95년에는 800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한 바 있다.

한편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수의 경우는 연간 약 600만톤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이 미국, 아르헨티나, 수단등에 의해 수출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일본, EU, 멕시코 등이며, 과거 수출국이었던 호주는 한발로 인해 수수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소맥은 사료용소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저급소맥들이 주로 사료용으로 유통되며, 해마다 교역되는 물량과 가격은 일침치 않다. 사료용소맥의 주요수출국들은 EU, 캐나다, 호주 등이며, 이들 3개국이 세계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들 국가의 수출여력

은 급격히 감소하여 수출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두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두를 수입해 오다가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을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하거나 또는 대두박을 직접 수입해 오기도 한다.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이 1억 1천 7백만톤 가량이며, 그중 50%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은 전체생산량의 25% 내외이며, 거의 60%를 미국에서 수출하며, 나머지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는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주요수출국이며, 그중 인도, 브라질이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활발한데 이는 인도와 브라질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직접 착유한 후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호밀이나 귀리, 보리등이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량이나 국제교역량이 많지 않으며, 주로 옥수수등의 대체원료로서 많이 이용된다. 특히 호밀과 보리의 경우 EU 및 캐나다의 시장지배력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와같이 국제사료곡물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의 시장지배력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기상이변이나 농업정책의 변화, 항만 스트라이크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등락은 물론 수입국의 사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그뿐

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구소련이나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비중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농업의 흉작이나 기상이변 등은 마찬가지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교란을 가져온다.

결국 많은 양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선 사료곡물의 공급불안정에 대한 위험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며, 특히 단일원료를 단일국가에서만 수입한다고 할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료곡종을 옥수수 단일품목에서 수수, 사료용소맥, 호밀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고, 수입선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다변화시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한 공급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원료가격의 상승은 주곡원료의 부산물인 소맥피, 채종박등의 가격까지도 동반상승을 유발시켜 최근에는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폭이 옥수수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곡물 등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과거 미산옥수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되던 중국산 옥수수, 사료용소맥, 소맥피, 타피오카 등을 이제는 미산옥수수로 대체해야 하다보니 미산옥수수 사용량은 전체 원료사용량의 5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고, 이로인한 가격인상요인은 단순한 미산 옥수수 가격상승폭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실정이다.

표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주요사료원료가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대부분 40~70%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

산옥수수의 가격상승율은 중국산 옥수수나 사료용소맥등에 대비하면 더 큰폭으로 오른 셈이 된다. 이와같은 큰폭의 원료가격상승과 함께 내륙수송비 및 보관비등의 물류비용 상승과 맞물려 배합사료업계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사료업계는 '90년대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향후 국제사료곡물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표1〉 주요 사료곡물 가격동향

(단위 : US\$/톤)

품 목	원산지	'94. 12	'95. 5(A)	'96. 5(B)	대비(B/A)
옥 수 수	미 국	134	149	230	153.4
수 수	미 국	131	145	228	157.2
사료용소맥	카 나 다	126	145	215	148.3
사료용대맥	카 나 다	124	137	226	165.0
호 밀	E U	107	105	185	176.2
대 두 박	미국 (48 %)	231	248	325	131.0
	브 라 질	213	209	300	143.5
	인 도	215	219	312	142.5
채 종 박	카 나 다	156	210	330	157.1
	인 도	110	145	155	106.9
면 실 박	중 국	135	140	160	114.3
소 맥 피	인도네시아	109	124	195	157.3
GSP	카 나 다	92	106	150	141.5
타 피 오 카	태 국	136	150	153	102.0
알팔파(펠렛)	미 국	120	145	165	113.8

3. 세계 사료곡물가격 전망

이상과 같은 수급변동과 관련하여, 향후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세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강

세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금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11.3% 증가한 8억 7,68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량 또한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재고율은 여전히 10% 수준의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이 그동안 사료곡물 수출국에서 근래들어 산업경제 발전과 함께 국내 소비량 증가 현상에 따라 옥수수, 대두, 쌀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고, 오히려 곡물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째, 곡물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상운임은 지난 10여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95년 이후 세계경기의 호전 및 건화물 운송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난 수년동안 신조선 건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을 보여 최근 파나마스(55,000톤)급 PNW선임이 14불, GULF는 24불로 '92년의 10불, 20불대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난해 WTO출범이후 주요수출국들의 곡물수출국들의 곡물내륙 수송시 그동안 지불되었던 보조금을 철폐함에 따라 곡물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지난해 주요곡물 생산국들의 흉작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세계수요량이 미국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브라질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대두생산지역에 그동안 지속되는 고온건조 기후로 대두감산이 우려되었다.

이와같은 상승요인에 반하여 금년도 상반기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을 되찾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약세요인으로는

첫째, 지난해 이후 세계사료곡물가격 및 수

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생산국들이 곡물 파종면적을 늘리고 있다.

둘째, 현재 대기수요상태에 놓여있는 한국, 일본, 대만등 주요수입국들의 원료구매가 일단락될 경우 당분간은 적극적인 구매가 일단락될 경우 당분간은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금년도 미국의 농업법안 개정에 따라 미정부가 농업의 보조금 삭감원칙하에 작부를 자유화시킴으로서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이 약13%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요변동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세계사료곡물 시장은 약세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적인 강세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도 파종된 옥수수나 사료곡물들의 출하시점인 금년 11월 이후에는 신곡출하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 및 재고율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가격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5월 30일 현재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7월물이 뷰셀당 4.7275불대로 수입가격은 C&F 톤당 225불 수준인데 반하여 12월물 가격은 뷰셀당 3.4750불로 수입가격이 약185불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산 옥수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파종이 겨우 끝난 단계로서 앞으로 기후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두단계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즉, 수분단계(Pollination Stage)와 수확이전 단계인 Dough-Stage와 Dent-Stage로 이 단계에서 비가

적게 오거나 서리가 내리게 되면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할 수도 있다.

. 또한 이와반대로 소맥의 경우 기후조건이 불량하여 제대로 알곡이 형성되지 않거나 단백질 함량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사료곡물쪽으로 이용될 사료용소맥(Feed Wheat)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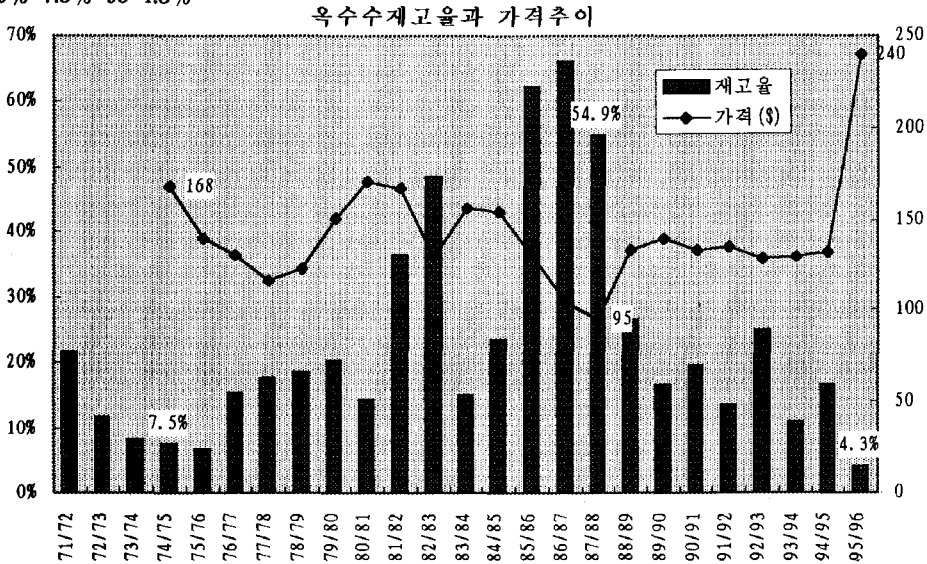
결국 향후 사료곡물의 가격은 구곡의 경우 재

고부족과 수입수요의 증가등으로 강세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향후 기후이변이 없이 미산옥수수의 생산증가와 재고수준이 향상될 경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수수 가격은 재고수준의 향상에 따라 과거 74/75년, 79/80년, 87/88년 이후 경험했듯이 가격안정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미국산 옥수수가격과 재고비율의 관계

옥수수 재고율과 가격추이 70% 60% 50% 40% 30% 20% 10% 0% 250 240 200 150 100 50 0

168 54.9% 7.5% 95 4.3%



주) 1. '74/'75 가격급상승(U\$4/부셸)

- '73. 5월 구소련의 갑작스런 수백만톤의 미산곡류구매
- '74년 가뭄, 1차 오일쇼크

2. '79/'80년 소련의 대량구매 및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3. '87/'88년 가격폭락-미국의 '84년 이후 연속 생산량증가 및 세계각국의 농업분야 투자증가에 의한 재고급증

4. '88/'89년 미국내 가뭄에 의한 가격급등

5. '95/'96년 가격급등

- 미국 생산량 격감, 중국의 수출중단 및 수입국 전환, 동남아 수요강세 지속-재고부족

4. 곡가상승과 국내외 산업의 파급효과

'94년말 부터 불붙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은 전세계 곡물교역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0년 미국옥수수 생산지역의 대역파로 최고가격을 기록했던 1981년 1월 가격을 넘어서 현재 C & F톤당 수입가격으로는 230불선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옥수수 평균가격이 149불이었던데 비하면 약 54% 상승하였다.

또한 '94년부터 '95초까지는 옥수수를 대체하여 100불 내외의 사료용 소맥과 호밀을 수입·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옥수수를 대체할 이들 곡물들의 수출여력도 바다난 실정이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상승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배합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미산옥수수만해도 7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는 지금까지는 상당량의 옥수수와 호밀, 소맥등을 조기확보함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적자기업이 속출하는 등 더이상 감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여 사료가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농의 경우 금년 1/4분기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전측중 평균 약 톤당 2500엔 인상 발표함으로써 '95년 4/4분기에 비해 약 9.7% 인상하였으며, 계속되

는 국제사료곡물가격의 급등여파로 '96년 2/4분기에 또다시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7.1% 정도 인상함으로써 총 17.0%에 가까운 가격인상을 하였다. 또한 대만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긴급대책 방안으로 그동안 배합사료에 부과한 영업세(5%)를 '95년 3월부터 완전폐지하였고, 옥수수에 대한 수입원료 관세를 현행 1.5%에서 0%로 인하조치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국내 관련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밀가루 가격이 2차례에 걸쳐 지난 1년간 약 18.0% 정도의 가격인상이 있었으며, 옥수수 관련재료인 정분의 경우도 17.0%의 가격인상이 있었다.

지난 10여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추세를 보여주고 있던 국제곡물시장이 이같이 폭등하고 있는 배경은 지난해 미국의 파종면적의 감소와 파종후 생육기간과 수확기간중의 일기불순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곡물수입국들의 수입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국들의 곡물공급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즉, 과거에도 3~4년 주기로 미국의 옥수수 생산증감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급등락을 경험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낮은 가격의 중국산 옥수수와 EU, 캐나다, 호주 등의 사료용소맥 및 호밀 등의 대체구매로 가격안정을 기해나갈 수가 있었으나, 최근의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상승의 배경에는 이들 생산국들의 수출중단은 물론 오히려 수입국으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가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5년부터 WTO체제의 출범과 그동안 곡물수출국들이 자국곡물의 수출시 보조해주던 수출보조금이 중단되고, 지난 10여년동안 안정세를 보여오던 곡물해상운임과 수출국의 물류비용(창고비, 내륙운송비 등)마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여서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미국의 가뭄피해로 인해 사료곡물 공급수준이 크게 떨어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미국의 농무성이나 농업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겠으나 미국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곡물수출량 확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더더욱 국내 소비용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옥수수 과잉재고에 시달리면서 공급수준을 적정량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등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해 왔으며, 금번 생산감소로 인해 수년만에 커다란 재정지출없이 생산을 감축하고, 잉여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이미 세계곡물가격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카고 곡물시장의 가격은 1983년의 대유평과 1988년의 대가물시 기록했던 당시의 가격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국의 입장에선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국가경제적으로는 수입부담이 늘게되고, 개인기업은 채산성이 어려워져 원가인상 압박을 받게되며,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적절한 판매가격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취약한 양축가의 경우 배합사료가격등의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적자를 보거나 전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난 1983년 미국의 감산시책을 통해 사료곡물 생산을 감축하고, 그해 열파현상까지 겹쳐 사료곡물가격이 급등하자 그 여파가 국내 축산업에까지 몰아쳐 그 다음해인 1984년 양돈농가수가 33% 줄면서, 전체 사육두수는 18%나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양계농가도 전년대비 32%나 줄면서, 사육두수는 6%나 줄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캐나다등의 가축사육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축의 출하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사료용으로서의 제한(Feed Rationing)에 따른 결과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곡물가격의 폭등은 축산부문 뿐만아닌 전체 우리나라 국제수지 및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1988년 미국의 대가뭄으로 곡가가 폭등하자 한국은행 물가조사국이 분석발표한 「미국 곡가상승의 국내파급효과」에 따르면 1988년 7월 19일기준 추가부담액은 2.5억달러로 추정되었고, 만일 10%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3.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었다.

또한 도매물가는 당시의 현시세보다 10% 더 상승할 경우 0.2%의 추가상승요인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불가분 국내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산업이 바로 축산사료 산업인 것이다.

5. 고곡가 시대의 대응책

곡가급등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의 축산물 및 식료품가격의 급등은 물론 주요수입국인 한국, 일본등의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배합사료 판매안정기금제도를 두어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이 국내 사료업체와 축산업계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있어 국제곡물 가격 하락시에는 양축가들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금년도 한차례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통해 어느정도 인상요인을 흡수하였으나 '96년도 하반기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고가구매가 불가피했으므로 벌써부터 하반기 사료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였어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폭의 배합사료 가격조정 및 내부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해 나갔으나 이제는 원료가격이 전년대비 약 60

~70%씩 상승하는 현실에서 사료회사들도 원가절감만 가지고 사료가격 인상압박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사상유례없는 곡가폭등에 직면하여 최근 이에대한 대응노력이 정부는 물론 업계와 학계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일시에 공급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국내 생산을 통해 자급율을 높여나간다 해도 아직까지도 외국의 사료원료가격의 3~4배되는 원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곡가파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식량에 대한 자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차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이고 효율적인 수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사료용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되어왔고, 이에따라 수입선의 다변화, 수입곡종의 다양화를 통한 공급자 독점시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상황과 같이 대체곡물이 없고, 오히려 여타수입국들의 가격이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시카고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와 현지개발수입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선물거래는 현재 많은 국내사료회사나 곡물수입회사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의 속성상 일부분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현지개발 수입은 과거 일본의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부나마 사료가격 인상을 완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규모 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전 양축농가에 확대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전양축농가를 지원·장려해주고 지금에와서 중소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 이후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원료의 관세 또한 일본과 같이 영세로 해주어야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사료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 확대적용등을 모두 들어준다 하더라도 배합사료에 미치는 원가인상요인을 모두 상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정책지

원을 통해 어느정도 가격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축가들도 이와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은 이제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축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축산조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새로운 생산비 증가추세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양축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내가는 길은 스스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아직 지분을 고치기도 전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축산업계에는 새로운 원가상승국면에 대비한 감량경영과 축산물 가격의 회복을 통해 소나기를 피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본다. □

